

# 부사 파생 접미사 ‘-이’의 부사절 형성에 관하여

## - 학교 문법을 중심으로 -

### < 목 차 >

- I. 서론
- II. 선행 연구 검토
- III. ‘-이’의 문법적 성격
- IV. 결론
- V. 참고문헌

## I. 서론

국어학에는 다양한 논쟁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논쟁들을 통해 국어 문법론이 발전하는 것은 이롭고, 좋은 일이겠지만 논쟁들이 골칫거리가 되는 곳이 있다. 바로 학교이다. 매년 평균 50만 명에서 60만 명의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 이 학생들을 공평하고 일관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준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어학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문법’이라고 명칭하여 정해두고, 그 기준에 맞추어 수능 문제를 내고, 학생들을 평가한다.

‘학교문법’은 위에서 서술한 대로 학생들을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안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설명들을 단순히 틀에 끼워 맞추려고만 한다는 것이다. 즉, 세세히 들어가자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전에 멈추어버리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는, 문법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학교 문법은 ‘평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뿐더러, 교사들과 학생들이 이미 그렇다고 알고 배우는 것이 연속되기 때문이다.

학교 문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로써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첫 번째는 ‘필수적 부사어’의 문제이다. 학교 문법에서는 ‘보격 조사’라는 것을 따로 설정하여,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가’가 붙은 성분만을 ‘보어’라고 설정한다. 하지만 이는 ‘보어’의 정의에 맞지 않으며, 주격 조사 ‘이/가’가 있는 상태에서 또 ‘보격 조사’를 설정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목적격 조사의 보조사적 용법’이다. 예를 들어 ‘나는 학교를 간다.’라는 문장의 ‘학교를’을 학교문법에서는 ‘목적어’로 설정하고 있다. ‘을/를’이 붙으면 무조건 목적어라는 것이

다. 하지만 ‘가다’라는 것이 타동사인 것이 직관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학교문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목적격 조사의 보조사적 용법’이라고 설정하여 이상한 설명을 하고 있다. 단순히 ‘목적격 조사, 부사어’로 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세 번째는 ‘-게 되다’를 ‘통사적 피동’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피동이라는 것은 통사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즉,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변화하는 등의 통사적 변화가 일어난다. 하지만 ‘내가 가게 되다’라는 문장의 ‘-게 되다’는 전혀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처럼 ‘-게 되다’를 피동으로 인정해 버리게 되면 학생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학교는 무책임하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연구에서 다룰 주제이다. 바로 부사파생접미사 ‘-이’의 부사절 형성에 관한 문제이다. 학교 문법에서는 부사절 형성의 예 중 하나로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와 같은 문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소리도 없이’를 부사절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부사파생접미사로 설정하고 있다. 이 부분이 필자가 학교문법 위주의 통사론을 공부할 때 항상 의문이 들었던 지점이었기 때문에 한번 다루어보고 싶었다. 항상 의아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접미사 ‘-이’에 의해서 부사절이 형성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부사파생접미사 ‘-이’에 의한 부사절 형성에 관한 단독 논문은 결국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포함한 최대한 많은 단행본들과 논문을 보고 거기서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본 뒤 이에 대해서 필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논해 보도록 하겠다.

## II. 선행연구 검토

여러 가지 단행본과 논문을 읽다 보니 ‘-이’에 대한 견해가 총 3가지로 나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이’를 ‘-이<sup>1</sup>’과 ‘-이<sup>2</sup>’로 나누어 부사 파생 접사와 부사형 전성 어미로 나누어 바라보는 관점이다. 두 번째는 학교문법과 같은 입장인데, ‘-이’를 접사로만 보고, 부사절을 안은문장에서 특이하게 접사 ‘-이’에 의해서 부사절이 형성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세 번째는 ‘-이’를 접사로만 보고 ‘-이’와 연결된 부분을 부사구로 보는 입장이다. 그럼 순서대로 그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1 ‘-이’를 접사와 어미로 구분지어서 보는 입장

첫 번째 견해는 ‘-이’를 접사와 어미로 구분지어서 보는 입장이다.

#### 1. 이관규,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개정판)』, 역락, 2016

이관규(2016: 246~247)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시하면서 파생접사 ‘-이’와 구분되어야 할 어미 ‘-이’가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 ㄱ.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 ㄴ. 그는 형과 달리 말을 잘 한다.
- ㄷ. 그들은 우리가 입은 것과 똑같이 입고 있다.
- ㄹ. 그는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한다.

위는 부사절을 안은문장을 제시한 것이다. 이관규(2016)는 전통적으로 위의 밑줄 친 문장들을 부사화 접미사 ‘-이’로 끝나는 부사절이라 해 왔다고 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경우의 ‘-이’는 부사화 접미사가 아니라 부사형 어미라고 해야 옳다고 한다. 부사절을 만들려면 서술어가 필요하고 서술어에는 당연히 어미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부사형 어미 ‘-이<sup>1</sup>’와 부사화 접미사 ‘-이<sup>2</sup>’가 따로따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관규는 명확하게 ‘부사형 어미’를 언급했으며, 어미 ‘-이’를 따로 설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접사가 아닌 어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미 ‘-이’를 부사형 어미 ‘-이<sup>1</sup>’와 부사화 접미사 ‘-이<sup>2</sup>’를 구분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2. 이익섭, 『국어부사절의 성립』, 태학사, 2003

다른 단행본과 달리 이익섭(2003: 164~166)은 ‘-이’의 문제에 대해 한 챕터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잡고 넘어가고자 하였다. 그는 ‘소리도 없이’의 ‘-이’를 활용어미로 볼 수 있다며 문제를 직시한다. 그는 ‘높이, 빨리, 반듯이’ 등에서 보이는 ‘-이’는 확실하게 파생접사이지만 ‘소리도 없이’의 ‘없이’는 파생어가 아니며 따라서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파생접사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활용어미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익섭은 ‘그 사람은 호쾌한 웃음을 웃음으로써 난처한 장면을 벗어 보려 하였다.’라는 문장에서 ‘-음’은 ‘-음<sup>1</sup>’과 ‘-음<sup>2</sup>’로 각각 접사나 어미로 파악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같은 ‘-음’으로 기본적으로는 어미인데 특수하게 접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파악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이’에 대한 논쟁 역시 그렇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논쟁에서 ‘-이’를 각각 접사와 어미로 나누는 방향을 취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이’에는 분명히 두 개의 다른 기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었다.

이익섭은 지금까지 ‘-이’가 어미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분포상의 제약이라고 보았다. ‘없이’와 ‘달리’에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가 의외로 꽤 자유롭게 부사절을 이끄는 예시들을 보이며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ㄱ. 군사들이 비호보다 빨리 뛰어다녔다.
- ㄴ. 연이 남산만큼이나 높이 올라갔다.
- ㄷ. 황금을 돌과 같이 보아라.
- ㄹ. 그분들은 친가족보다도 극진히 나를 돌보아 주었다.
- ㅁ. 금년은 어느 해보다 풍족히 눈이 왔다.

이 중에서 ‘빨리, 높이, 같이, 극진히, 풍족히’는 부사로서 쓰였다고 보기 힘들고, 각각 ‘군사들이 비호보다 빠르다’, ‘연이 남산만큼이나 높다’, ‘황금이 돌과 같다’, ‘그분들이 친가족보다도 극진하다’, ‘금년이 어느 해보다 풍족하다’ 등의 절을 이끄는 서술어로 쓰였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위의 ‘빨리, 높이, 같이, 극진히, 풍족히’를 부사로 보게 되면 그 주위의 단어들 이 공중으로 뜨게 되기 때문이다. 부사의 경우 문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도 문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런데 ㄱ 문장에서 ‘빨리’를 빼는 경우 ㄱ은 ‘군사들이 비호보다 뛰어다녔다.’라는 아주 이상한 문장이 된다. 즉 ㄱ~ㅁ의 문장의 ‘-이’나

‘-히’가 붙은 것들은 서술어를 꾸며주는 단독 부사가 아니라 부사절의 서술어라는 것이다.

## II.2 접사 ‘-이’가 부사절을 이끈다고 보는 입장

다음은 가장 흔한 입장으로서, ‘-이’를 접사로 바라보고, 접사 ‘-이’가 특이하게 부사절을 이끌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점은 학교문법에서 채택되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 1. 이삼형 외, 『독서와 문법』, 지학사, 2009

#### ③ 부사절을 안은 문장

##### 다가서기

- 다음 문장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 ) 안에 있는 용언을 적절한 활용형으로

바꾸어 보자.

예시 답!

- 그는 (아는 것도 없다) 잘난 척을 한다. → 그는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한다.
- 철수는 (발에 땀이 나다) 뛰었다. → 철수는 (발에 땀이 나게 /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부사절은 절 전체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서술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위 문장에는 ‘아는 것도 없다.’와 ‘발에 땀이 나다.’ 같은 문장들이 안개 있는데, ‘-이’, ‘-게’, ‘-도록’ 등이 붙어서 부사절이 된다. ● 부사절의 개념과 실현 방법  
부사화 접미사 부사형 전성 어미

##### 친해지기

- 다음 문장에서 부사절을 찾아 밑줄을 쳐 보자.

예시 답!

-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 그곳은 그림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다음은 실제 고등학교 교과서의 ‘부사절을 안은문장’에 관한 부분이다. 현행 교과서에서는 부사절을 만드는 표지 중에 ‘-이’를 부사화 접미사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왜 절을 만드는 ‘-이’가 접사인지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III. 부사 파생 접미사 ‘-이’의 문법적 성격’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 2. 남기심·고영근, 『제 3판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2011

남기심·고영근(2011: 394~395)은 부사절을 안은문장에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고 있다.

- ㄱ. 그 사람이 말도 없이 떠나 버렸구나!
- ㄴ. 그 아이가 형과는 달리 사교에 능하다.

이에 대하여, 부사 형성의 접사 ‘-이’가 붙어서 부사절이 된 것이며, 활용어미가 아닌 파생 접사 ‘-이’가 부사절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긴 하지만 ㄱ과 ㄴ은 부사절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ㄱ, ㄴ의 ‘없이’, ‘달리’는 그 단독으로 부사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사람이 말도 없다.’, ‘그 아이가 형과는 다르다.’라는 문장의 서술 기능을 하면서 문장 전체(절)가 부사어가 된 것이므로 이들을 부사절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남기심·고영근은 ‘-이’에 관한 부사절 형성을 인정하면서, ‘-이’를 부사 파생 접미사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왜 부사형 어미가 아닌 굳이 부사 파생 접미사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다.

### 3. 임지룡,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박이정, 2008

임지룡은 ‘부사절은 안긴문장을 부사형으로 바꾸어 주는 구실을 하는 ‘-이’, ‘-게’, ‘-도록’, ‘-(아)서’ 등이 붙어서 만들어진다.’라고 서술하였다. 즉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이 단지 ‘구실을 한다’라고만 서술한 것이다.

- ㄱ. 그는 소리도 없이 내게 다가왔다.
- ㄴ. 그곳은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 ㄷ. 우리는 아이들이 지나가도록 길을 비켜 주었다.
- ㄹ. 도로가 차가 많아서 혼잡하다.

임지룡(2008)은 ‘소리도 없이’가 부사절로 안긴문장이라고 하면서 ‘-이’를 ‘-게’, ‘-도록’, ‘-(아)서’와 같이 부사절을 형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접사인지 어미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위의 문장은 단행본이 개정되면서 바뀐 문장이라는 것이다. 2005년판에서는 ‘부사절은 안긴문장을 부사형으로 바꾸어 주는 구실을 하는 부사형 어미 ‘-이’, ‘-게’, ‘-도록’, ‘-(아)서’ 등이 붙어서 만들어진다.’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정판에 ‘부사형 어미’라는 말을 뺐으로써 ‘-이’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판단을 보류한 것이다. 이는 ‘-이’에 대한 설명에서 ‘부사형 어미’를 삭제함으로써 접사로 파악한 것일 수도, 혹은 ‘접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부사형으로 바꾸어 주는 구실을 하는’이라고만 한 것으로 보아 ‘-이’의 부사형 어미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삭제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접사로 파악했다고 판단하겠다. 아마 학교문법과 맞지 않는 서술이었기 때문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 4.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08

고영근·구본관(2008)은 부사절을 형성하는 방법 중에 파생 접사가 있다고 명확하게 서술하였다. 다음은 그 인용문이다.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은 한 문장이 부사절의 형식으로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가 더 큰 문장을 만드는 절차에 의해 만들어진다. 부사절은 연결어미 ‘-게’나 파생접사 ‘-이’ 등에 의해 만들어진다.

- (18) 가. 그 아이는 형과는 달리 사교성이 있다.
- 나. 철수가 말도 없이 가버렸다. (고영근·구본관2008: 505~506)

고영근·구본관은 (18)가, 나의 ‘달리’와 ‘없이’는 어간에 부사 형성 파생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므로 부사로 볼 수 있지만 이때 ‘-이’에 어미적인 성격이 남아 있다고 하였다. ‘-이’의 어미적인 성격이란 ‘그 사람이 약속과 달리 기어코 나타나지 않았다.’의 ‘달리’를 ‘다르게’와 같이도 쓸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이 문장을 ‘그 사람이 약속과 다르게 기어코 나타나지 않았다.’로 바꾸어도 아무런 의미 변화가 없으며, ‘다르게’의 ‘-게’는 명확하게 어미이기 때문에 ‘-이’ 역시 어미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굴절적 성격을 가졌다고 언급

한다. 또한 '(18)가'의 '달리'의 주어 명사구 '그 아이'는 중복되어서 생략되어있다고 한다. 이 말은 '형과는 달리'가 명확하게 부사절을 형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 II.3 '-이'를 접사가 부사구를 이끄는 것으로 보는 입장

세 번째 관점은 '-이'를 접사로 보면서 '-이'가 부사절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부사구를 이끈다고 보는 입장이다.

#### 1. 남기심, 『현대국어 통사론』, 태학사, 2001

남기심은 부사절도 명사절, 관형절과 마찬가지로 부사절의 표지인 부사형 어미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예들을 제시한다.(남기심2001: 233~254).

- ㄱ. 그 사람이 말도 없이 떠나 버렸구나.
- ㄴ. 그 아이가 형과는 달리 사교에 능하다.

남기심은 이 문장들에 대해서 활용 어미가 아닌 파생접사 '-이'가 부사절을 이끌 수 없다고 하면서, 따라서 '없이', '달리'는 서술어로 쓰일 때 보충어나 부가어를 거느리고, 그들과 함께 부사어를 이루어 쓰인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부사구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없이'와 '달리'가 서술어로 쓰이는 것은 인정하지만 절을 형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즉 이 주장은 위의 밑줄에서 주어가 없다는 것이다. 절을 형성하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인데, 서술어는 인정하고 있지만 절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어가 없다는 뜻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 2. 민현식, 「국어의 부사화」, 국립국어원『새국어생활』 14권 4호, 2004.

민현식(2004)은 '나뭇잎이, 소리도 없이, 떨어진다.'라는 문장을 제시하면서 '없이'는 그동안 대부분 삽입된 절로 보았으나 부사구로도 보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삽입 부사절로 보려면 '없이'가 서술어가 되어야 하고 '-이'를 어미로 봐야하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그러면 접사가 부사절을 만든다는 국문법 어미와 접사 체계를 뒤 흐드는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므로 '소리도'는 부사 '없이'에 유도된 부사구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어미를 봐야하는 것이 왜 문제점인지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다.

## III. '-이'의 문법적 성격

나는 II. 에서 다룬 의견 중에 첫 번째 의견(어미와 접사를 구분하는 입장)에 동의한다. 그 이유는 마지막에 언급하기로 하고 우선 두 번째와 세 번째 의견에 대해서 반박해보고자 한다.

우선 '접사 '-이'에 의해 부사절이 성립된다.'고 하는 학교문법으로 대표되는 두 번째 입장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부사절의 '-이'를 접사로 보면 학생들에게 굉장한 혼란을 초

래한다. 나의 일부 경험이긴 하지만,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바라본 학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며 논리적이다. ‘절’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에는 단어들이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전성 어미’는 품사를 바꿔주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반면 ‘파생접사’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품사를 바꾸어 준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꿈을 꾸’이라는 단어들의 나열이 있으면 앞의 ‘꿈’은 ‘명사 파생 접사’가 붙어서 품사가 명사가 된 것이고, 뒤의 ‘꿈’은 ‘꾸-’에 명사형 어미 ‘-(으)ㄴ’이 붙어서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배운 학생들에게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의 ‘-이’는 접사이고 ‘소리도 없이’는 부사절이라고 가르친다면, 학생들에게 부사 파생 접사가 붙어서 부사가 되어버린 ‘없이’가 서술어도 아닌데 어떻게 절을 이끄는지 의문이 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없이’를 부사로 본다면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의 부사절은, ‘소리도(주어)+없이(부사어)’와 같이 절의 개념에 모순된 형태(절에 서술어가 없음)가 나타난다.

다음으로 ‘접사 ‘-이’는 부사구를 형성한다’고 보는 세 번째 입장에 대해 다뤄보기로 하겠다. 이 견해는 ‘-이’는 접사이니 ‘-이’가 이끄는 것은 절이 아니라 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의견은 한국인의 직관과 맞지 않다.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라는 문장을 읽었을 때 ‘소리도 없이’를 구로 인식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나는 이 의견을 위의 두 번째 의견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의견은 “‘-이’는 접미사이다.”라고 하는 체계에 맞추기 위해 할 수 없이 ‘절에서도 접사가 이끄는 절이 있다.’고 예외로 두고 있는 반면, 이 세 번째 의견은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직관을 무시하고 마침내 체계에 맞추어버려 ‘구’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맞지도 않는 옷에 몸을 억지로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없이’와 ‘달리’는 보충어나 부가어를 거느리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주어를 거느리고, 따라서 절을 형성한다. ‘호수에 물이 없다.’, ‘산에 나무가 없다’와 같이 분명히 ‘없다’는 주어를 거느린다. 또한 위의 예시 ‘그 아이는 형과는 달리 사교에 능하다.’도 ‘다르다’가 ‘형과’라는 보어만을 거느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를 동시에 거느린다고 생각한다. 즉 ‘그 아이가 사교에 능하다’라는 문장과 ‘그 아이가 형과 다르다.’라는 문장이 합쳐진 겹문장이다. ‘그 아이가’는 모절의 주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된 것이다.

따라서 ‘없다’와 ‘다르다’ 등 서술어의 기능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없이’, ‘달리’를 부사로 만들어 버리고, 이것들이 이끄는 것을 부사구로 보는 것은 문법적 틀에 맞추기만을 위한 미봉책이다. 따라서 ‘-이’는 남기심이 주장한 보충어나 부가어를 거느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를 거느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술관계를 형성하고, 절을 형성한다고 해야 한다.

그러면 왜 ‘-이’를 접사 ‘-이’와 어미 ‘-이’로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로 ‘-이’를 접사와 어미로 구분하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선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으며, 국어학적인 측면에서도 체계에 맞다. ‘-이’에 의한 부사절 형성을 인정한다면 부사형 어미 ‘-이’도 인정해야 한다. ‘부사절’에는 서술어가 존재해야 하는데 안긴문장의 서술어에 파생 접사를 붙여 부사로 만들면 더 이상 서술의 기능을 잃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생 접사가 아닌 전성 어미를 붙여 서술의 기능을 하면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이익섭(2003)의 말대로 ‘-이’는 ‘달리, 없이, 같이’ 외에도 생각보다 널리 사용된다. 학교 문법에서 어미 ‘-이’를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분포가 넓지 않아서라고 생각된다. 즉 어미 ‘-이’를 부사형 어미 중 하나로 추가하게 되면 몇 개 되지 않는 예 때문에

체계를 하나 추가시키는 것이므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이익섭의 예시처럼 ‘군사들이 비호보다 빨리 뛰어다녔다.’와 같이 어미 ‘-이’가 널리 쓰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로 접사와 어미의 형태가 동일한 것을 이미 학교문법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은 ‘-이’를 구분지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음’이 있다. 학교문법에서는 명확하게 명사파생접미사 ‘-음’과 명사형 어미 ‘-음’을 구분하고 있다. 위에서 예시로 든 ‘꿈을 꿈’의 뒤의 꿈은 서술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명사형 어미로 다룬다. 물론 통시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와는 다른 국어사적 측면이 있다. 명사형 어미는 본래 ‘-음/음’이었기 때문이다. 즉 원래 부터 명사 파생 접미사와 명사형 어미가 형태로도 구분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법은 변화하기 마련이고, 공시적으로 봤을 때 부사형 어미 ‘-이’를 따로 설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IV. 결론

국어학이라는 분야가 원래 한 가지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논쟁이 있다. 그러나 교육이나 평가의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학교문법’이라는 것을 설정했다. 결국 ‘학교문법’도 여러 주장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없다. 그 중 본고에서는 파생접사 ‘-이’에 의한 부사절 형성에 대해서 다뤄보았다.

선행 연구에서는 그 견해가 크게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 견해(이관규(2016), 이익섭(2003))는 접사 ‘-이’와 어미 ‘-이’를 구분하자는 것이었다. 이 견해는 부사절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절이 형성되기 위해선 서술어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접사가 아닌 어미가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견해(이삼형 외(2008), 고영근·남기심(2011), 고영근·구본관(2008), 임지룡(2008))는 ‘-이’가 접사로서 부사절을 이끈다고 보는 것이었다. 이는 ‘-이’의 분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체계를 추가 시기키엔 부담스러우니, 절을 형성하는 것 중 예외로 접사가 절을 이끄는 것으로 보자는 견해이다. 세 번째 견해(남기심(2001), 민현식(2004))는 ‘-이’가 접사로서 부사구를 이끈다고 보는 견해였다. 이 견해는 문법 체계에 맞추기 위해서 접사 ‘-이’는 절을 이끌 수 없으니 ‘-이’가 이끄는 것은 주어가 아니라 보충어나 부가어이며 따라서 부사구라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견해는 학생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문법 체계에 맞지 않는 설명을 한다는 점, 세 번째 견해는 한국인의 직관을 거스른다는 점 등의 이유로 문제가 있다.

첫 번째 견해처럼 접사와 부사형 어미를 구분하여 체계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이고, 문법 체계에 맞으며, 생각보다 ‘-이’가 이끄는 절이 다양하고, ‘-음’과 같이 학교문법에서 이미 동일 형태를 다른 형태소로 보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 V. 참고문헌

### \* 단행본

- 고영근·구분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08.  
남기심·고영근, 『제 3판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2011.  
남기심, 『현대국어 통사론』, 태학사, 2001.  
이관규,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개정판)』, 역락, 2016.  
이삼형 외, 『독서와 문법』, 지학사, 2009.  
이익섭, 『국어부사절의 성립』, 태학사, 2003.  
임지룡,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박이정, 2008.

### \* 논문

- 민현식, 「국어의 부사화」, 국립국어원『새국어생활』 14권 4호, 2004.